



국내뉴스

圖書館法 定期國會에서 改正키로 確定

최근 政府측에서는 現行圖書館法 改正案을 오는 9月 定期國會에 提出키로 決定하고 이를 위한 本格的인 준비작업에 들어 갔다.

그동안 이 問題를 위하여 圖書館界에서는 關係당국에 수십차례에 걸쳐 건의하고 촉구한 바 있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18년간이나 묻혀있었던 最大當面問題가 금년에서야 解決되어지게 되었다.

現在 本協會에서는 關係부서와 구체적인 협의를 하고 있으나 우리 圖書館界에서 要求하는 重要한 事項들에 대하여 關係당국에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바람직한 내용으로 改正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것 같다.

圖書館界에서 要求하는 基本的인 重要한 몇가지 事項을 들어 보면, 公共圖書館의 設置의무화, 大學圖書館, 特殊圖書館에 대한 獨立 규정, 司書職의 養成 및 資格基準과 司書職員 및 司書教師의 配置, 國立中央圖書館의 機能 강화, 圖書館協力網의 구축등인데 이에 대하여 關係당국은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어서 圖書館界와 정부측간

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적극적인 協議를 필요로 하고 있다.

醫學圖書館協議會 定期總會 開催

의학도서관협의회 제15차 정기총회가 지난 5月 7日 延世大 醫大圖書館會議室에서 會員 100餘名이 參席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날 定期總會에서는 사업계획 심의와 任期滿了된 任員改選이 있었던 바 會長에는 소 진탁 학장(연세대의대) 전 무이사에는 이승하(연세대의대)선생이 각각 유임되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 醫學關係雜綜合目錄 第6輯이 發刊되어 配付되었다.

國際圖書館協會聯盟總會 開催

第48次 國際圖書館協會聯盟(IFLA) 總會가 오는 8月 22日부터 28日까지 캐나다 몬트리얼에서 개최된다.

이번 국제도서관협회연맹 총회의 主題는 “네트워크”(Network)이다.

本協會에서는 등 국제회의에 참석을 希望하는 會員의 申請을 5月 25日까지 접수하여 총회조직위원회에 등록 신청을 하였다.

全國主要大學圖書館長懇談會 開催

—KOR MARC 協議를 위하여—

國立中央圖書館에서는 5月 14日 全國主要大學 도서관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전국의 각대학에서 38명의 도서관장 및 주무과장이 참석하였는데,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지난 2월에 韓國의 전체 도서관이 標準의으로 사용할 것을 目的으로 하는 韓國文獻自動化目錄法 標準用 포맷(KOR MARC)을 제정하고 이를 컴퓨터에 실험해 왔는데 이에 대한 說明과 앞으로의 電算化에 대한 報告를 통하여 相互協力を 구하고 積極 참여하여 圖書館業務의 現代化를 期하는 方案을 모색하였다.

全南大, 釜山女子大學 圖書館學科 學生 本會見學

全南大學校 圖書館學科 學生 38명이 지난 5月 17日 韓 相完교수의 인솔로 본會를 訪問하였고, 釜山女子大學 圖書館學科學生 40餘명이 金 斗弘교수의 인솔로 지난 5月 27日 本會를 각각 訪問하였다.

이들 學生들은 現場수업의 일환으로 各級 圖書館을 見學訪問中 本會를 訪問하여 本協會活動과 全體圖書館界의 現況을 듣고 意見을 나누었다.

全國圖書館學科 體育大會

第5回 전국도서관학과연합체육대회가 연세대학교 도서관학과 主催, 전국 도서

관학과연합회 후원으로 지난 6月 6日 中央大學校 대운동장에서 200餘名の 學生이 參席한 가운데 성대히 개최 되었다.

이날의 경기 種目은 남자축구, 남자배구, 여자배구, 여자족구와 80m, 100m, 400m 육상경기로 각각 진행되었는데 綜合우승은 淑明女子大學校圖書館學科가 차지하였고, 남자축구우승은 明知大學 圖書館學科, 남자배구의 우승은 한성대학 圖書館學科, 여자배구와 여자족구의 우승은 淑明女子大學校 圖書館學科가 각각 차지하였다.

全國 圖書館學科聯合會는 서울을 中心으로한 各大學 圖書館學科 學生들의 모임으로 70年代 初부터 모임을 가졌으나 그간 各大學의 사정으로 그 活動이 활발치 못하였다. 現在 이 모임은 中央大學校 圖書館學科에서 會長(서취)을 맡고 있으며 우선 서울을 中心으로 聯合會 活動을 展開하고 있으나 점차 全國의으로 조직을 확대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한다.

江南社會福祉學校 圖書館學科 大學과정 確定

江南社會福祉學校(4年制大學 學歷인정) 도서관학과는 그동안 學歷은 大學 學歷을 認定되었으나 司書資格證을 取得하는 문제는 未確定이어서 在學生들의 圖書館界 進路에 문제가 있었으나 이번에 文敎部長官으로부터 學歷인정과 아울러 正司書資格證 取得이 인정됨으로써 실질적인 4年制大學 圖書館學科로 공식인정받게 되었다. 現在 이 學校의 圖書館學科 在學生은 모두 114名이다.

「大學圖書館 業務便覽」發刊

國立大學圖書館協議會에서는 大學圖書館業務의 實務指針書가 될 「大學圖書館 業務便覽」(4·6版, 355面, 일신출판사)을 發刊하였다. 이 便覽은 理論보다는 實務에 관한 구체적인 節次등을 다루고 있어서 장차 業務標準化를 위한 귀중한 指針이 될 것이다. 이 便覽을 구득하려면 國立大學圖書館協議會(서울大學圖書館)로 연락하면 된다.

(전화 877-0635번)

韓國어린이 圖書賞施賞

大韓出版文化協會가 실시하는 第3回 한국어린이圖書賞시상식이 지난 5월 21日 出版文化協會강당에서 行해되었다.

第3回 한국어린이도서상 수상자는 일터스트레이션 部門에 安政彦씨의 “해님 달님”(語文閣), 著作部門에 李俊淵씨의 “날아 다니는 다람쥐”(曉星社), 企劃編輯部門에 同和出版公社 編輯部の “그림나라 100” 제1집 전20권이 차지하였다.

書店의 圖書展 活發

서울 종로의 두 서점 敎保文庫와 韓國出版販賣株式會社가 6월 7日부터 19日까지 동시에 圖書展을 벌인다.

교보문고는 6월 1일로 개장 1주년은 기념행사로 「世界大學 出版圖書展」을 마련, 국내와 일본 구미지역 80여개 대한 出版物 6,439종을 敎保빌딩 홀에서 展示하며 韓國出版판매주식회사에서는

韓國古書同友會 創立을 기념하는 뜻에서 회원 30여명의 소장도서 127종을 일반에게 公開하는 特別展을 준비하여 同社 3층 賣場에 展示公開을 마련했다.

책속 寄生벌레 51種

—서울大 白雲夏교수 연구발표—

책 갈피에 기생하는 벌레의 가지수가 무려 51種이나 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서울大 농생물학과 白雲夏교수가 최근 발표한 「서적해충에 관한 조사연구」란 論文에 의하면 책속에는 곰팡이와 같은 有害미생물 말고도 해충만 따져도 좀목(目), 바퀴목, 뽕개미목, 다드미벌레목, 딱정벌레목, 나비목, 벌목, 파리목, 응해목 등 9개目に 51種의 벌레가 기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들중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은 좁이저만 좁은 책표지의 표면만을 얹고 넓게 갈아 먹을 뿐 책에 치명적 타격을 주는 것이 아닌데 반해 딱정벌레목의 권연벌레, 털수염벌레 등은 몸길이가 3~5mm정도이면서 책갈피 속깊히 갱도를 뚫어 책을 완전히 못쓰게 만들기까지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해충들로부터 서적을 완전히 보존하기 위해서는 해충발생의 요인이 되는 먼지를 정기적으로 제거해야 하고 서고의 온도와 습도를 알맞게 유지해야 하며 적절한 書架를 선택해야 한다. 서고의 온도는 16~18도, 관계습도는 40~65%가 이상적이며 서가는 공기의 유통이 잘되게 개방적인 것이 좋다고 한다.